| 산업통상자원부 | 보 도 자 료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 |
|---|---|---|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1. 2.(수) 17:30<br>< 11. 3.(목) 조간 > | 배포 일시 | 2022. 11. 2.(수) |
| 담당 부서 | 통상협력국<br>중동아프리카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김영윤 (044-203-57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송영택 (044-203-5727) |

# 한-사우디 에너지 장관,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

## - 안정적 원유 공급 당부, 양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-

□ 2022. 11. 2.(수) 오후 **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**압둘아지즈 빈 살만(Abdulaziz bin Salman)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**의 요청으로 화상 면담을 갖고,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양측은 원유 **공급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공조**를 통해 **원유 시장 안정**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,

○ 사우디가 **한국의 주요 원유 도입국**이며, 양국이 **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**라는 점을 확인하고, **공급망 안정화**를 위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.

□ 양측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생산에 강점이 있는 사우디 간에 **수소 분야 협력 가능성을** 높이 평가하는 한편,

○ 양국 간 **수소 협력**을 **체계화**하고, **수소 정책**, **이동수단, 암모니아 발전**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국 내 **수소 생태계 구축**에 상호 기여하는 데 뜻을 함께 하였다.

□ 아울러, 양측은 **양국 수교 60주년**을 맞이하여 **석유화학, 설비 건설**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투자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,

○ 최근 사우디가 발표한 「**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**」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**사우디**가 **수소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 공급망 중추**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
*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는 **107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** 및 **27억불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** 계획이 포함된 「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(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)」 발표(10.23)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중동아프리카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김영윤 (044-203-57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송영택 (044-203-5727) |
| | 석유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김대일 (044-203-52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명지혜 (044-203-5225) |
| | 수소경제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이옥헌 (044-203-39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만식 (044-203-3953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